



제목: 이제 알아요, 할머니

6학년 배슬진

"쿵쿵, 우르르~ 와지직" 그날의 사건을 예감이라도 하듯 하늘에선 전주곡이 요란했다. '우리집엔 할머니와 부모님, 20대까지 두 오빠들과 평균 나이를 꼭 떨어떨여 주는 귀한 고명딸 내가 있다. 요즘 덩치않게 3대 6평의 가족이 한 공간에서 사는 우리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다. 난 언제나 부모님과 같이 조용하게 사는 외동딸 친구들이 늘 부러웠었다.

우리 할머니께서 일하시는 부모님 탓에 어릴때, 늦둥이인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로 유명했었다.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할머니 어름장에 누구도 날 건드려 자가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할머니의 잔소리가 귀찮아지고 뭐가 그리 관심있는지 이리저리 내주위를 캐는 할머니의 질문들이 잔잔리가 났다. 아무리 심심해도 혼자 오락을 하거나 친구와 재탕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할머니와의 대화보다 오히려 즐거웠다.

그러나 내이런 변화들에 하늘에서 내린 일침의 희생양은 내가 아닌 할머니였다. 화장실에 손 씻으러가신 할머니께서 남은 물기 탓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고 말았다. 연세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많이 다치고 회복도 늦을 거라 하였다.

학교 후 덩치않게 들리던 잔소리도 없고, 암암도 할머니 간병으로 안개속서 꿈에 그대 내 세상을 줄로만 알았는데, 쉼결 할머니의 원자리가 그렇게 클 수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주시던 분도 할머니였고, 내 옷 정리며 크고 작은 할머니의 손길이 한두군데가 아니었다.

새삼, 할머니가 그리웠다. 무슨 개망한지 모르지만 저녁을 먹고 할머니가 제신 병원으로 운행을 갔다. 날 한기시는 할머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났다. '할머니 죄송해요...' "슬진아, 할매 화장실 가려고 좀 거들어라." 할머니 팔목을 붙들며 드리며 다짐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 드릴게요."





제목: 우린 한팀이라구요!

5학년 이현영

큰상자, 작은 상자, 더 큰 상자... 이사할 준비에 우리 가족은 새벽부터 일어나 자기 짐 싸기에 정신이 없었다. 아침 나절에 도우미 아저씨들이 오실 테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래도 있는 탓에 나름 자기의 소중한 짐싸기에 바빴다.

대구에서 부산으로 오는길은 금방이었다. 깔끔한 아파트에 우리들의 오만가지 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엄마, 백날이 지나도 다 정리 못하겠어요." "니꺼만 해." 엄마의 간단한 대답이 바쁘게 몸을 움직였다. 그런데 짐보따리에선 온통 언니옷, 언니책, 언니 신발들 온통 언니 물건으로 넘쳐났다. '엄마는 언니꺼만 온통 사주고..' 갑자기 언니가 샘이 났지만 그만큼 많이 일할 언니 생각하니 씬퉁이었다. 백날이 걸릴 거라던 내 짐작은 어디가고 오후 세시가 되니 가구들 속으로 물건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아들어갔다. 아~

하느님같은 우리가족의 협동심을 느낄 그진가를 발휘해, 짐챙기기 올림픽이 있었다면 금메달 감이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나고 마무리가 되었다. 늦은 저녁밥을 9시가 되어서야 먹었지만 우리가족 모두 새 보금자리에 기대와 열 보여준 푹푹 웅친 협동심에 감동 그 자체였다. 아바게션 그중에 내가 제일 큰 일꾼이 되며 칭찬을 해주셨다. 우리가족은 정말 꼭꼭 물리 퍼즐처럼 잘끼워 맞춰진 한팀임이 분명했다. '우리가족 화이팅!'





가족과 건강

<엄마 역할>

2학년

정서희

엄마가 열이 많이 나고 아팠다.

나는 차가운 물수건을 엄마 머리에 얹어드리고 간호를 해드렸다.

엄마는 나한테 먼저 자라고 하셨지만, 많이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도 내가 아팠을 때 이렇게 나를 간호해 주시면서 밤을 꼬박 세우셨겠지?

이번에 내가 엄마 역할을 해 보니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다.

다음날 엄마가 다 나은데, 모두 내 덕분이라고 칭찬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올해 100

“엄마, 엄마 역할을 해보니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멋진 화가가 될 테니까요.

엄마! 사랑해요!”

올해에 아빠도 담배를 끊으셔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농구를 했다. 농구를 선택해서 운동한  
 이유!! 요즘 한창 베이징 올림픽으로 모든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도 열기가 뜨거워져 있다. 종목 종목마다 금메달을  
 획득하며 응원도 하고 게임에 빠져 보기도 한다. 농구 또한 재미나는  
 경기이고 우리 가족도 한번 해보기로 해서 집앞 공원에 가서 농구 경기  
 를 해 보았다. 선수들 같이 재미로 되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추억  
 이 될 만은 것 만으로도 아주 좋은 하루였다.





나는 옅 우리 가족이랑 저녁에 공원에 갔다.  
 엄마는 줄넘기를 하고 나도 줄넘기를, 아빠와 동생동제는 축구를 했다.  
 엄마와 나는 푹푹뛰며 줄넘기를 했다.

엄마는 4보다 조금 못했다.  
 나는 93개를 했지만 엄마는 23개를 했다.

23은 내반반다

어제는 동생 동제와 아빠의 축구를 구경하러 갔지만 우리도 축구를 배워줘야겠다.  
 그래서 나는 아빠와 엄마는 동제팀 공이 나한테 오면 내가 뺏아서 멀리 공이 날아갔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차에 시원한 에어컨을 타고 왔다.  
 하루 하루중에 오늘이 제일 재미있었다.



# 제 9 회 어린이 자전거 운전 면허 시험

대상: 7.29 ~ 7.31

장소: 어린이 교통공원



제 목 : 자전거 운전 면허 시험 보는 날      9세 (2학년)  
진 연 지

시험 날, 가슴이 쿵쿵쿵 조금 딱었지만, 가족이 응원해 주어서 합격을 했다.

에너지 절약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마련한 자전거로 많은 것을 얻었다.  
준법정신도 배우고, 자전거로 인해 환경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도 생겼다.

자전거 면허증 화이팅!





제	목	:	수	영	장	나	이	:	8		학	년
이	름	:	이	유	지							
언	니	,	이	무	와	수	영	장	에	간	갔	다.
미	크	림	도	도	있	었	다.	미	끄	림	들	
이	름	은	들	고	래	다.	들	고	래	를		타
러		갔	다.	너	무	나	무	서	있	다.		언
니	랑		같이	들	고	래	를		타	차	고	
했	다.		재	미	있	고,	무	서	있	다.		이
가		라	면,	아	이	스	크	림	을		사	주
다.		다	먹	고		다	시	를	수	이	무	들
어	갔	다.		재	미	있	었	다.				





제목: 행복한 계곡

나이: 도원 초등학교 2학년 (9세)

이름: 신 동 희

우리 가족이 다같이 계곡을 갔다. 언니는 용감하게 다이빙을 하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수영을 했다. 엄마는 나에게 큰  
물을 뿌렸다. 너무 시원했다. 그리고 참 행복한 하루였다. 그래서  
이 계곡을 행복한 계곡이라고 지어 주었다.

내년에는 또 놀러 올게!!!





제목: 행복의 산.      금산 초등학교 6학년 3반

이름: 김예림

어머니는 지난 3년 동안 암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와 함께 집근처에 있는 산에서 자주 산책을 하곤 하였다. 가족 모두 힘들었지만, 산에 갈 때만큼은 항상 즐겁고 어느때 보다 행복 했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산을 '행복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던 지난여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우리 곁을 떠나셨다. 힘든 상황 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슬픈 일이 찾아 올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정말 건강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우린 한동안 산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몇일 전 우리 가족은 다시 그 산을 찾아갔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져 슬프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쌓았던 예쁜 추억도 떠올랐다. 또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내려오는 길에 예전처럼 자주 산에 오기로 약속했다.





제목: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학년: 2학년

김승희

우리가족은 다섯식구이다. 함께 시간을 가질 기회가 없다. 아버께서는 365일 일을 하신다. 그런데도 저녁늦게 지친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웃는 모습만 보여주신다. 아버께서는 저녁을 드시면, 우리 가족을 데리고, 동네 한바퀴를 돈다. 걸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물어보곤 한다. 아버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셨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라고 말씀하셨다. 학교, 학원, 집, 베만 있어서 활동할 시간이 없는 나에게 힘들어도 함께 걸어주시고, 대화도 해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산 이시간이 가자리진다.

우리가족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가족이다.





제목: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가족

나이: 9세 (2학년)

이름: 고가원

아빠께서 정성들여 가꾸신 우리 집 텃밭의  
 야채들이 잘 익어서 오늘 저녁은 엄마께서 그  
 야채를 따서 반찬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맛있고 건강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후에 마당에서 운동을 했는데 땀을  
 흘리고 나니 개운하고 기분이 좋았다.









제목: 세상과 함께하는 훌라우프

9세(2학년)

이름: 공주현

선학산에 가면 훌라우프가 있다.

우리 가족은 매일 주말마다 선학산 정산에 있는 훌라우프를 조금씩 돌린다.

어머니께서는 냇살좀 번다고 하시겠지만 난 우리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훌라우프를 돌린다.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훌라우프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다 보면 어머니께서 나에게 하신 잔소리가 싹 날아가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도 우리가족은 매일 주말마다 선학산에 올라가 훌라우프를 돌릴 것이다.

훌라우프를 돌리고 있으면 지구가 돌듯이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다.





제목: 자전거 산책

9세 (2학년)

이름: 김민수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산책을 나간다.  
 문화예술회관 앞 자전거 도로  
 자전거를 타고 뽕뽕 달리다 보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그때마다 남풍 바람이 불어와 이마에 맺힌 땀을 씻어  
 준다.  
 어머니께서 싸오신 도시락을 먹고,  
 우리 가족은 하늘에 있는 별도, 차심으로 차득안고 집으로  
 돌아 왔다.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제목: 행복으로 뭉친 우리 가족 즉 나이: 12살 학교: 동진초등학교 5학년 5반

이름: 하지훈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여럿이 모여 행진하는 모습

함양유립에 사는 큰 아버지댁에 갈려면 항상 경호강이 보이는 고속도로를 향한다.

우리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래프팅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와~아 정말 멋지다. 신나고 재밌겠다. 타고싶다" 라고 생각만 했던 일들이 드디어 이번 여름방학 때 체험을 하게 되었다.

경호 1교, 2교, 3교, 4교, 5교 까지 거쳐 15km, 약 3시간 정도 산청휴게소 까지 가야한다.

우리동생 수정이는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불안한지 울기만 했다.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우리 가족은 노를 저었다. 처음에는 이리쿵 저리쿵 갑자기 속담도 생각이 났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지만 아버지의 구령소리에 맞춰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었다.

하나, 둘, 영차. 하나, 둘, 영차. 노래도 부르고 환호성도 지르고 가슴이 땀 뚝리는 것이 정말 시원하였다.

산청길에 구경만 했던 래프팅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결코 쉽게만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우리 가족이 협동해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니가 마음이 뿌듯하고 대단하다는걸 느끼게 되었다.

따뜻한 우리가족이 있어 난 너무 행복하다.

엄마, 아빠, 수정아 사랑합니다.





제목 우리 가족 화이팅!

작가 5학년 한유빈

동생과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에 가기로 했다. 신나게 공을 차며 득실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저기 운동장이 보인다. 나는 운동장을 향해 공을 뱅뱅차며 달렸다. 어느새 우리 가족은 한팀이 되어 골대를 향했다. 그런데 내가 공을 차려고 할때 동생이 넘어지면서 내뺨을 잡아 당겼다. 아마티면 나까지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공을 넣어 기분이 좋아졌다. 동생과 엄마도 박수를 쳐주었다. 마치, 내가 상이라도 받은듯 했다. 가족들과 뛰다보니 땀도 많이 나고 힘들었지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목: 운동

9학년 8반 이승빈 (송덕초등학교)

우리는 누나, 나, 엄마는 밤 8시 부터 9시까지 졸넘  
 기를 합니다. 100번 씩 졸넘기를 한 다음 5분 쉬고 다시  
 졸넘기를 200번 합니다. 100번씩을 더 하고 나서 10분  
 쉬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 오아서 위몸일으키기를 합니다.  
 시원하게 목욕을 한 다음 기분 좋게 선풍기를 틀고  
 든든히 과일을 먹고 잡니다.  
 운동을 하고 나니 기분 매우 좋고 잠이 빨리 옵니다.





## 자전거

8세 (1학년) 오주연

오늘은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탔다,

강가에는 꽃과 풀들이 많고 바람도 시원했다.

내가 아직 자전거를 잘 못 타서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고

타는법을 가르쳐 주셨다.

혼자서 자전거를 잘 타는 언니가 부러웠지만

나도 조금 더 연습하면 잘 탈수 있을거같다.

가족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하루였다.





## 두발자전거 타기

7세(1학년) 배범규

가족과 함께 서울숲에 갔다. 아빠랑 엄마는 산책을 하시고 누나랑 나는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가 1대뿐이라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탔다. 나는 요즘 보조바퀴를 떼고 두발자전거 타기를 연습 중이다. 잘 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과 달리 자꾸만 비틀거렸다. 내가 자꾸 넘어지려고 하니까 누나가 뒤에서 잡아주었다. 누나가 잡아주니까 두근두근 하던 마음에 용기가 생겼다. 그럴 때 마음씨 착한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도 나를 보시고 조금만 더 연습하면 생생 달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그런지 땀을 많이 흘렸다. 나무 그늘에 앉아서 집에서 가져온 얼음물을 마시니까 뱃속까지 시원해졌다. 가까운 곳에 마음놓고 자전거를 타고 놀 수 있는 서울숲이 있어서 참 좋다.





제목: 여름 휴가

이름: 전수현 (2학년 - 9세)

일기: 우리 가족은 외갓집 식구들과 함께  
 버리어스 콘도로 여름 휴가를 갔다. 그 곳 수영  
 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미끄럼틀을 타면서 신나  
 게 놀았다. 야외 수영장이어서 좋은 점이  
 있다. 수영을 하면서 간식을 먹고도 계속  
 할 수 있고 튜브를 사용해서 수영을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 칼칼국수

김영민

오늘 엄마가 칼국수를 만들어 주셨다.

엄마가 만들어 주는 칼국수는 다른 데서 먹는 것 보다 훨씬 맛있다.

왜 그런 걸까?

“엄마, 엄마가 만든 칼국수는 왜 더 맛있어요?”

“응, 그건 엄마의 사랑 양념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엄마의 대답을 듣고 나는 엄마가 더울까봐 선풍기를 틀어 드렸다.

엄마가 만들어 주신 칼국수는 역시 묵지묵지 맛있었다.

매일 매일 칼국수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가	족	화	합	등	산	하	는	날	세
								임	정
"	헉	헉	,	아	휴	힘	들	어	"
힘	들	어		투	정	을	하	니	"
참	같			오	르	는	데	?"	
힘	이	펄	펄	남	니	다		등	산
가	족	사	랑	이	쑥	욱	!	행	복
세	상	에	서	제	일	중	은	운	등
가	족	이		이	야	기	하	며	걸
사	랑	이		화	물	이	피	어	남
우	리	가	족	건	강	파	이	팅!	





제	목	!	가	족	과	함	개	한	즐	거	운	뜻	놀	이
이	름	!	김	지	훈	12	세	5	학	년				
	온	가	족	이	모	이	는	설	날	우	리		가	
족	은	할	어	님	댁	에	가	사	다	할	어	니	와	
	상	존	,	사	존	이	우	리	를	기	쁘	게		
반	겨	주	셨	다	설	아	칭	차	레	를		맛	치	
고		온	가	족	이	모	였	으	나	뜻	놀	이	를	
하	자	고	하	셨	다	설	랜	마	음	에			팀	
을		극	성	하	고	시	합	하	여	우	리	리	가	
족	이		아	깝	게	그	등	하	였	다		오	랜	만
에		온	가	족	이	모	여	즐	거	운		시	간	을
보	내	며	가	족	사	랑	을	다	시	금	느	꼈	다	





삼계탕 8000원

제 목	인	가	족	의	즐	거	운	외	식			
1	학	년	김	예	진							
할	아	배	지	꺼	서	가	슴	이	저	리	고	아
파	수	술	을	하	셔	야	한	다	느	의	사	선
생	님	말	씀	에	할	머	니	와	엄	마	도	마
음	이	말	이	아	프	시	다	고	하	셨	다	엄
마	가	슬	프	면	나	도	슬	프	다	수	술	을
받	고	좋	아	지	셔	서	할	아	배	지	가	안
아	프	니	까	가	족	의	마	음	이	다	시	
기	뻘	다	오	래	만	에	는	다	우	함	께	이
는	삼	계	탕	을	음	질	겉	게	글	먹	었	다
나	할	애	배	지	슴	화	이	탕	!	가	는	게
하	셨	다	오	래	만	에	는	다	우	함	께	이